

**북한 미그21기 생산.  
귀순 최주환상좌 회견**

북한은 지난 93년부터 미그21 전투기를 자체생산하고 있으며, 사정거리가 1천km에 이르는 미사일의 대량생산에 착수한 것으로 10월 13일 알려졌다.

최근 귀순한 북한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소속의 최주환 상좌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북한의 군비증강 실태를 공개했다.

최상좌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80년대말 동독주재 무관이 훔쳐온 미그 21기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연구사업을 계속했고,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부품과 생산기술에 관한 지원을 받아 미그21기생산에 들어갔다. 최상좌는 "우크라이나의 항공관련 기술자 30~40명이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해 사업을 마치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상좌의 이같은 증언은 북한이 구소련 붕괴이후 소련제 무기 부품의 반입중단으로 군비증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서방측 관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최상좌는 "북한은 현재 평양시

의 [대지공장]에서 사정거리 1천 km의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며 "80년대에 개발된 사정거리 3백, 4백km의 전술미사일은 이미 전선 배치가 완료됐고, 사정거리 1천 km의 미사일도 곧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臺灣, 조기경보기  
4대 인수**

대만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무기구입 예산을 당초보다 17% 늘어난 7백억 대만달러(약2조1천억원)로 대폭 증액했다고 대만의 자유시보(自由時報)가 9월 25일 보도했다.

대만의 중앙일보는 다음달 군사훈련에 참여할 E-2T 조기경보기 4대를 2백5억 대만달러(약6천1백50억원)에 미그루만社로부터 인수했다.

또 구매계약이 끝난 미국의 F-16과 프랑스 미라지2000 전투기를 내년중 인수받아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게 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만은 조기경보기의 도입으로 외부 침공에 대한 조기경보시간을 현재 5분에서 25분으로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인니서 구입검토  
파키스탄에 갈 F-16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증강을 위해 F-16 20기를 도입할것을 검토중이리는데 미국은 파키스탄이 발주한 항공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것이라고 한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미국정부는 동국이 일찍이 발주한 20기의 F-16 전투기를 금수조치하여 묶어 놓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파키스탄에 수출하려던 전투기 20대를 사갈 곳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대만과 필리핀이 이 전투기를 사려했으나 값이 맞지 않아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ASEAN 외상회의에서 미국무장관과 인도네시아 외상이 협의하여 미국방성이 검토하게 된 것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산 F-16전투기를 사지 못하게 되자 미라주 전투기 중고를 사서 21세기까지 유지할 방침인것 같다.

**연내에 기종확정  
UAE차기 다목적기 도입에**

아랍 에미리트는 너무 넓아 문제가 있는 미라주III 전투기의 후

계기로 40~80기 가량의 다목적 항공기를 구입할 예정인데 방금 F-15, F-16, 미라주 2000-5 Su-30MK, Su-35등 각종 전투기들이 후보에 올라 있다고 한다.

구매 기종은 연내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 프랑스, 러시아등 3국은 각각 이 구매품량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페트리어트를 비롯 조기경보체제와 합하여 일괄 판매를 위해 치열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S-300지대공 미사일과 한데 묶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UAE 공군이 미라주 전투기의 조종과 조작에 숙련되어 있는 점을 들어 판매성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UAE측은 유로파이터 2000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으나 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팔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듯하다.

### 2002년에 실용화 B747-400탑재 레이저무기

미 공군은 B747-400 점보제트기를 개조해 만든 기상 레이저 발사기 ABL을 7기 조달하여 2002년부터 공중에서 쓰는 레이저 무기를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군사평론 소식통이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레이저 장착 ABL기는 2002년부터 20년간 가량 사용할 예정인데 ABL기 개발비로 향후 5년간에 7억달러가 소요되며 그후의 조달경비등으로 약 50억 달러가 소요되고 다시 20년간의 운용에 10억달러이상의 지원경비가 들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서 레이저무기를 배치 운용하려면 같은 규모와 기간인 경우 450~500억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항공기에 탑재 운용하는 편이 싸게 든다는 계산이다.

미 공군에서는 우선 보잉과 록히드 마틴과 록웰과 휴즈팀의 두개 팀에게 ABL에 대한 세부 설계와 제안설명을 2100만달러에 발주해 놓고 있는데 약 33개월후인 97년에 이들의 제안을 검토한 뒤 1팀을 선정하여 실용화를 위한 실전기 제작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 영 호크기, 40기 이상 판매 말레이시아등에

영국 BAe사제의 호크 전투기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나라에 40기 이상이 팔려 해외 세일

즈에 성공적이라고 보도되었다.

영국 BAe사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군에 호크 208 18기를 인도했는데 최근 그 최종호가 영국공항을 출발했다고 발표했다.

호크기종은 이미 108을 말연에 10기를 인도했으며 208기종은 20기를 몇번에 나누어 작년부터 인도하기 시작 마무리가 된것인데 호크 200시리즈는 값이 싸면서도 AN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작전능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200시리즈만도 40기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 24기 체제로 강화 일, 정찰기 개수로

일본 항공자위대는 신형기의 구입과 보유기의 개조등을 통해 특히 정찰기의 성능을 향상하여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찰항공대 강화계획에 따르면 F-4EJ전투기를 정찰용으로 개조하여 각종 정찰용 기재를 탑



영국기지를 떠나는 호크 MK208의 모습

재하는 작업을 95년도말까지 12기 발주키로하여 내년 4월경이면 완성 인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재래형의 기존 정찰기에 전방감시용 레이더를 장착하는 개수작업을 계속 발주하여 95년도말이면 전방감시 레이더 장착기가 12기로 되어 도합 24기의 최신 정찰기를 갖추어 공중으로부터의 정찰 능력이 강화될것이라고 한다.

### 영공군에 제안 록히드, U-2기 판매위해

록히드 마틴사는 U-2정찰기를 영공 공군에 팔기 위한 일련의 회담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영국 공군은 아군 공격기의 현 지지시간에 의한 목표 확정용으로 쓸 의향으로 전선 정찰보다 정확한 공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영국에 팔 예정인 U-2기는 엔진을 GE101 터보팬형 추력 42.6톤급으로 바꾸어 탑재한 U-2S형인데 최대 12기를 판매할 예정이라고한다. U-2S형은 고도 24,500m 이상을 15시간동안 비행할 능력이 있으며 항속거리는 7,400km이상이다.

미국은 1982년에도 영국에 U-2

기를 팔기위해 타진한바 있으며 록히드측은 98년까지 37기의 수주량을 납품하고나면 일이 없기 때문에 영국에 팔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미국기 부대편성 미공군 네리스기지에

미국공군은 신형 장시간 채공 무인항공기(UAV)를 운용할 최초의 부대를 네바다주 네리스 항공기지에 처음으로 편성했다. 이 부대는 네바다 렌지의 인디언 스프링스 보조비행장에서 운용되는데 이 지역은 출입제한지역으로 되어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극비의 신개발 항공기, 헬기, 무인기등이 시험된 곳이다.

최근 항공 전투군단 사령관으로 취임한 랄스톤대장은 무인항공기를 최우선한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이번에 무인기 운용전문 부대가 편성 된것도 이런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동 기지의 제11정찰비행대는 먼저 티어-II 프레테이터형 무인기를 운용할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형의 정찰기 3기가 이미 보스니아지역에 배치되어 무인 정찰에 투입하고 있으며 다시

고고도 스텔스 무인기 티어-II 다크스타도 운용하게되며 무인항공기에 의한 정찰이나 전투등의 운용이 더욱 활기를 띠것으로 보여진다.

### 해상감시기 채용연기 인니공군, 장비구비못해

인도네시아 공군은 해상감시기의 채용계획을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항공기 제조업체는 반둥 공장에서 CN-235형 항공기의 생산을 계속하는데 공군에 의한 해상감시기 발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봄에 한번 연기한데 이어 가을에 다시 연기하는데 대하여 곤혹하고 있다고 한다.

두번에 걸친 채용연기는 동기에 탑재장치할 수색용 레이더, 전방감시 적외선 장치, ESM등 여러 필수장비의 선정과 입수가 늦어지는 때문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제 해상감시기